

# 최근 3년간 原典學會誌 논문의 傾向性에 대한 研究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 對於最近三年間原典學會誌的傾向性之研究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最近三年間揭於學會誌的論文數總八十八篇，這是由於學會誌的增刊，所以發表於2004年的論文數見於增加數值，但一號當平均論文數是維持一定水平。共同論文和單獨論文的比率是當於2004年，見共同論文的比率增加的特徵。這是由於研究者數的增加，所以期待研究的活性化，但需要傳任教員的主導的參加。關於主題，關於韓醫學經典的研究很多，且關於溫病學和明清醫家的研究，也活潑進行。這是關於新的理論和臨床的開發，所以期待很多有肯定的作用。

關鍵詞：原典學會誌，韓醫學經典，溫病學

### I. 緒論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는 “大韓原典醫史學會誌”라는 명칭으로 1987년 창간호가 발간된 이후 2004년 8월 17권 3호(통권 제26호)가 발간되기까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발간되어 왔다. 학회지가 발간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년 1회 발간되어 오다가, 1998년부터 년 2회로 증간하였고, 2004년부터는 년 4회 발간하기로 규정을 수정하여 현재까지 3호가 발간되었다. 한편, 학회지의 명칭은 창간호가 발간된 시점

부터 1999년 12권 2호(통권 제15호)가 발간되기까지는 “大韓原典醫史學會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1999년 5월 1일 대한원전외사학회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와 한국의사학회로 분과 되면서 2000년 6월에 발간된 13권 1호(통권 제16호)부터는 현재의 명칭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이하 “原典學會誌”로 약칭)로 바뀌게 되었다.

원전학회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논문 투고규정 및 편집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에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하는 학회지로 등재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원전학회지의 경향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것이 원전학회지의 질적 향상과 앞으로

\* 교신저자 : 양정균, 강원도 원주시 삼지대호교 한의과 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bjkdwc@mail.sangji.ac.kr Tel : 033-730-0668

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기에 연구를 시행해 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2002년 2월에 발간된 15권 1호 (통권 제20호)부터 2004년 8월에 발간된 17권 3호(통권 제26호)까지 총 7호에 걸쳐 掲載된 8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 분석에 있어서는 각 호당 논문편수, 저자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2. 논문편수

최근 3년간 원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88편으로, 2002년에 24편, 2003년 28편, 2004년 36편이 게재되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매년 2회 발간되어 2002년에는 1호당 평균 12편, 2003년에는 1호당 평균 14편이 게재되었고, 2004년에는 8월까지 3회 발간되어 1호당 평균 12편이 게재되었다. 3년간 원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1호당 평균 논문편수는 12.57편으로 매년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발표되는 총 논문편수에 있어서는 학회지의 증가로 인해 2004년도에 증가되었고, 17권 4호가 발간되면 증가폭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표 1. 연간 1호당 총논문편수 및 평균논문편수

년도	권, 호	논문 편수	총논문 편수	1호당 평균 논문편수
2002년	15권1호	13	24	12
	15권2호	11		
2003년	16권1호	13	28	14
	16권2호	15		
2004년	17권1호	15	36	12
	17권2호	10		
	17권3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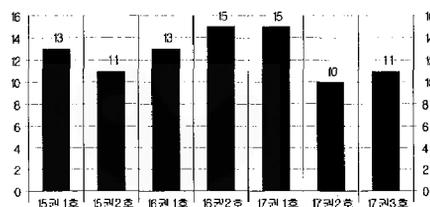


그림 1. 호당 총 논문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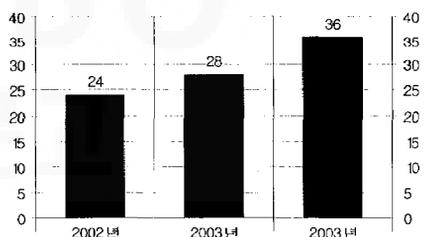


그림 2. 연간 총 논문 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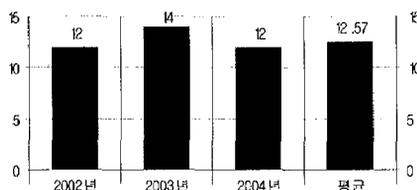


그림 3. 1호당 평균 논문 편수

### 3. 저자수

#### 1) 총 저자수 및 논문 1편당 평균 저자수

15권 1호 - 17권 3호에 걸쳐 게재된 논문의 총 저자수는 166명이다. 이를 연도별로 조사해 보면 2002년에는 45명(15권 1호 22명, 15권 2호 23명), 2003년에는 44명(16권 1호 18명, 16권 2호 26명), 2004년에는 77명(17권 1호 25명, 17권 2호 22명, 17권 3호 30명)으로, 2004년도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에 학회지가 증간된 결과로, 2004년 11월에 17권 4호가 발간되면 더욱 큰 증가폭을 보일 것이다. 한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차례 학회지가 발간되면서 각 호당 저자수는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논문 1편당 평균 저자수로 계산을 해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권 2호와 17권 3호에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를 연도 별로 계산을 해 보면 2004년의 논문 1 편당 저자수가 3년간의 평균치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그림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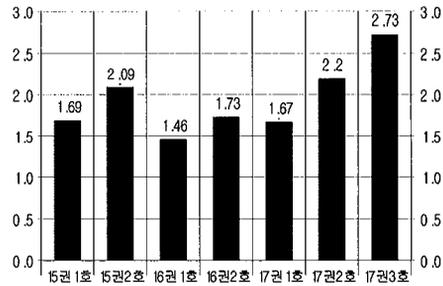


그림 4. 논문 1편당 평균 저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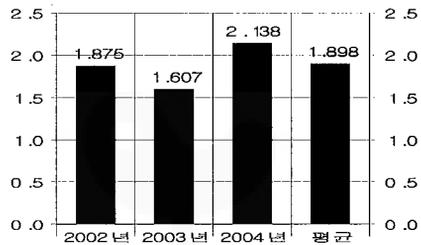


그림 5. 연간 논문 1편당 평균저자수

표 2. 총 저자수 및 논문 1편당 평균 저자수

연도	권, 호	논문 편수	총 저자수	논문1편당 평균저자수
2002	15권1호	13	22	1.69
	15권2호	11	23	2.09
2003	16권1호	13	19	1.46
	16권2호	15	26	1.73
2004	17권1호	15	25	1.67
	17권2호	10	22	2.2
	17권3호	11	30	2.73

2) 단독 논문과 공동 논문의 비율

단독 논문과 공동 논문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과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 논문의 비율이 떨어졌고, 이러한 단독 논문 비율의 하강 추세는 2004년에 발간된 17권 2호와 17권 3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6】 과 【그림7】 참고)

표 3. 공동 논문과 단독 논문의 비율

년도	권, 호	단독 논문	공동 논문	총 논문 수	1호당 단독 논문 비율	년당 단독 논문 비율
2002	15권1호	6	7	13	46.15%	33.33%
	15권2호	2	9	11	18.18%	
2003	16권1호	8	5	13	61.54%	50%
	16권2호	6	9	15	40%	
2004	17권1호	6	9	15	40%	25%
	17권2호	2	8	10	20%	
	17권3호	1	10	11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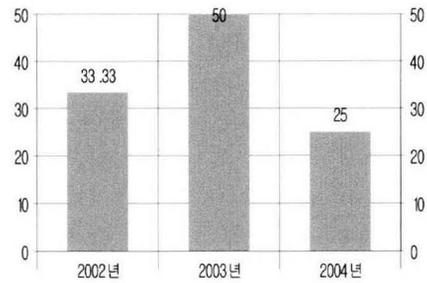


그림 8. 년당 단독논문 비율(%)

이상 3-1),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문 1편당 저자수가 증가하고, 단독 논문의 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원진학회지가 활성화 되고, 또한 연구자의 저변이 확대됨으로써 학문이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구자수가 증가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학원생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원진을 본격으로 연구하는 전공자가 증가했다는 점은 학문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구자 수의 증가는 공동 논문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 논문의 증가로 인해 단독 논문의 비율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전임 교원의 주도적인 논문 참여 비율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자수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원진을 전공한 전임 교원의 심도 깊은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학회지 발행을 확대한 2004년에 발간된 학회지에서 단독 논문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구 인력의 확대를 통한 외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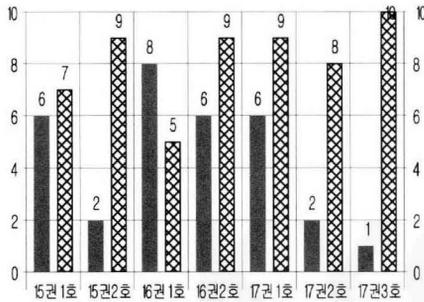


그림 6. 호당 공동논문과 단독논문의 편수 (■:단독논문, ▨:공동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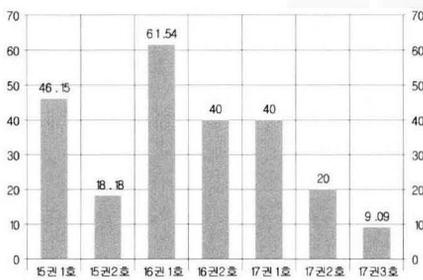


그림 7. 호당 단독논문 비율(%)

증가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연구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비 전공자의 논문 및 저자 비율

원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국내의 원전 전공자를 제외한 저자의 수는 총 13명, 논문편수는 12편으로 나타나, 각각 약 8%와 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4】참고) 이들 13명의 저자를 구분해 보면, 외국인이 2명, 타학부 졸업생이 4명(음대 1명, 한문학과 1명, 동양철학과 2명), 의과학 전공 3명, 본초·방제학 2명, 경혈학 1명, 예방의학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의 원전 전공자, 원전학과 유사한 의과학 전공자 그리고 타학부 출신으로 대학원에서 원전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를 제외하면, 저자수는 6명(약 4%), 논문편수는 5편(약 6%)으로 그 수치가 더 떨어진다. 앞으로 원전학회지가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전학회 이외의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외국의 원전전공자, 의과학 전공자, 타학부 졸업자를 포함

저자수	13명	7.784%
논문	12편	13.64%

표 5. 외국의 원전전공자, 의과학 전공자, 대학원 원전 전공자를 제외

저자수	6명	3.61%
논문	5편	5.68%

#### 5. 주제

주제 면에 있어서는 【표 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황제내경』·『난경』·『상한·금궤요략』 등을 위시한 한의학 경전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의학 이론 및 임상 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들 경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온병과 관련된 논문도 4편이 발표되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清代에 형성된 온병학은 조선시대 反淸 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에 유입되지 못하였다. 그 영향은 현대에 이르기 까지 이어져 아직까지 한국 한의학에서 온병학의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병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나마 진행되고 있는 점은 한국 한의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론 및 임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기대된다.

또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의가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14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의가의 저술 및 학술 사상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 저변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이론 및 임상 기술의 개발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醫家들에 대한 연구에서 李濟馬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의가에 치우쳐 있고, 또 중국 의가도 대부분 淸代 의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또한, 14편의 의가의 학술사상과 관련된 논문 중, 많은 논문이 “淸名醫全書大成”이라는 시리즈물에 대한 번역을 위주로 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측면으로 남는다.

표 6. 주제와 관련 논문 편수

주제	편수
황제내경	25편
난경	3편
상한론·금궤요략	8편
기타저서	11편
온병	4편
의가	1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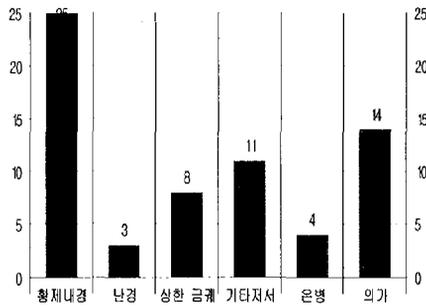


그림 9. 주제와 관련 논문 편수

### Ⅲ. 結 論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최근 3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편수는 총 88편으로 학회지의 증간으로 인해 2004년도에 발표된 논문 수는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호당 평균 논문 편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저자 수는 166명으로 2002년에 45명, 2003년에 44명, 2004년에 77명으로 2004년 들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공동 논문과 단독 논문의 비율은 2004년도에 공동 논문의 비율이 증가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공동 논문 편수의 증가는 연구자수의 증가를 통한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임 교원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한편, 비전공자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비전공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학회의 활성화 및 다양한 측면에서 학문이 연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3. 주제 면에 있어서 한의학 경전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溫病學을 포함한 明, 清代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 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한의학의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이론과 임상 방법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가에 대한 연구에서 중국의 의가와 관련된 연구에 치우쳐 있고, 또한 번역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는 점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Ⅳ. 參 考 文 獻

【15권 1호】

1. 김도훈, 홍원식, 『老子』와 『黃帝內經』의 人間觀과 自然觀의 比較研究
2. 이병욱, 박현국, 김기욱, 『脈經』의 傷寒學說에 관한 연구
3. 김연섭, 김인락, 『상한론』과 『금궤요략』에 수록된 錢乙의 의미
4. 이정환, 박찬국, 홍원식, 溫病의 病因에 관한 연구-吳有性の 戾氣說을 중심으로-
5. 방정균, 芸菴의 理氣論 研究
6. 성신, 이남구, 『靈樞·九宮八風』에 對한 研究
7. 김성수, 이남구, 『靈樞·九鍼論』에 對한 研究
8. 서정민, 육상원, 『靈樞·病傳』에 對한 研究
9. 김중환, 王履의 『內經』과 『難經』 經文에 대한 註釋 연구
10. 遲華基, '治未病者' 爲 '聖人'
11. 魯明源, 『內經』古今變動思想探討
12. 백상룡, 溫病과 傷寒의 傳變體系에 대한 연구
13. 정창현, 『黃帝內經』중의 時空模型에 대한 연구

【15권 2호】

1. 김기욱, 박현국, 『黃帝蝦蟆經』에 關한 研究
2. 오준환, 김기욱, 박현국, 이병욱, 김은하,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 記載된 小兒科 學說에 關한 研究
3. 김기욱, 박현국, 『黃帝內經』에 記載된 氣血·神의 運行體系에 關한 研究
4. 정창현, 『黃帝內經』 時空認識의 特徵
5. 정창현, 『黃帝內經』의 人體生命活動節律에 대한 研究
6. 이승현, 백상룡, 三陰三陽과 律呂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7. 노진우, 육상원, 『靈樞·陰陽繫日月』에 對한 研究
8. 이해웅, 김훈, 朝鮮時代 宣祖의 疾病에 關한 考察
9. 장우창, 홍원식, 柯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傷寒論翼』을 중심으로-
10. 서명진, 이남구, 『諸病源候論』中 『風病諸候』上에 대한 연구
11. 고성호, 이남구, 『靈樞·歲露論』에 對한 研究

【16권 1호】

1. 박찬국, 東洋哲學과 韓醫學
2. 성호준, 儒醫 의학의 사상적배경에 관한 이해
3. 김낙필, 갈홍의 신선사상과 도교의학
4. 윤창렬, 宋代 運氣學에 關한 研究
5. 홍원식, 조대진, 藏府病證과 經絡病證 區分에 관한 研究-『黃帝內經』을 中心으로-
6. 정창현, 『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7. 김지용, 『靈樞·經水』에 對한 研究
8. 엄동명, 『素問·脈要精微論』 ‘春日浮’에 대한 새로운 解釋
9. 윤창렬, 張介賓의 醫易思想
10. 백상룡, 神志의 活動과 衛氣의 역할-衛氣의 浮沈과 精神의 活性에 대하여-
11. 이경근, 노진우, 육상원, 『靈樞·師傳』에 對

한 研究

12. 백유상, 홍원식,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13. 정현식, 홍원식, 三陰三陽의 개념에 따른 手型의 연구

【16권 2호】

1. 이승현, 홍원식, 五行으로 분류한 音樂이 누에의 形質變化에 미치는 영향-韓方 音樂治療를 중심으로-
2. 윤창렬, 金火交易에 관한 考察
3. 방정근, 정창현, 耑菴 韓錫地 思想 研究-李濟馬 思想과의 比較-
4. 김중환, 五藏 九竅과 易理의 상관성에 대한 研究
5. 이경우, 정창현, 丹波元簡이 醫籍 訓詁學에 기여한 成果 고찰-『素問識』를 중심으로-
6. 신용섭, 이용범, 書證의 고열 증상 및 發汗解表法의 적용에 대한 고찰-『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暑’ 조문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7. 김기욱, 박현국, 藏醫學의 診斷法에 關한 研究
8. 김기욱, 박현국, 『黃帝內經素問吳注』에 關한 研究
9. 오정대, 김공빈, 이남구, 老年期의 特徵에 對한 文獻的 考察
10. 김공빈, 오정대, 이남구, 『靈樞·刺節眞邪』에 對한 研究
11. 정창현,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新知見-『厥陰爲樞, 少陰爲合』을 중심으로-
12. 차용석, 2002년 中國全國醫史學會學術大會 發表論文分析報告
13. 신순식, 陽明在泉 燥淫所勝의 病證과 氣味 배합 분석
14. 백상룡, 神志(五神)의 職分과 機能에 대한 考察-韓醫學의 精神觀-
15. 정종국, 신영일, 『靈樞·五癰津液別』에 對한 研究

【17권 1호】

1. 엄동명, 『素問·藏氣法時論』의 '苦以燥之'에 대한 考察
2. 윤나리, 김중환, 黃帝內經에 나오는 針刺 禁忌에 대한 考察
3. 백상룡, 박찬국, 難經의 奇經八脈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정창현, 難經의 五行生克理論 活用に 대한 考察
5. 백유상,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6. 조학준, 윤창렬, 尤在涇 傷寒貫珠集의 證治 特徵에 대한 小考
7. 김기욱, 박현국, 南宋時期 醫學에 관한 研究(1)
8. 이병욱, 김기욱, 박현국, 南宋時期 醫學에 관한 研究(2)
9. 오은영, 윤창렬, 沈金鰲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10. 유한철, 윤창렬, 李中梓의 生涯와 著書에 관한 研究
11. 최용우, 정창현, 素問에서의 天人氣機構造의 인식방법과 의의
12. 최태희, 윤창렬, 陳修園의 生涯와 學術淵源에 관한 연구
13. 백진웅, 藏府의 八卦 配屬에 관한 研究
14. 이병욱, 千金要方에 기재된 藥浴療法에 관한 연구
15. 이용범, 關鬲樞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에

【17권 2호】

1. 박철, 정창현, 백유상, 藏府相通關係에 관한 考察-『醫學入門』을 중심으로-
2. 이기동, 정창현, 백유상, 『傷寒六書』의 성립 과정과 후대에 미친 영향
3. 이용범, 十二支化氣와 四時陰陽消長の 관계에 대한 연구
4. 방정균, 滋陰降火와 引火歸原 治法の 의의

에 대한 고찰

5. 이병욱, 김기욱, 박현국, 『黃帝內經』에 나타난 眼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연구
6. 김기욱, 박현국, 박정희, 『黃帝內經』에 기재된 眼科의 生理·病理에 관한 연구
7. 박기태, 윤창렬, 陳士鐸의 生涯와 著述에 대한 연구
8. 이병직, 윤창렬, 『陳士鐸의 陰陽五行說에 대한 闡發』
9. 오은영, 윤창렬, 『沈金鰲의 『婦科玉尺』에 대한 研究』
10. 유한철, 윤창렬, 李中梓의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17권 3호】

1. 양종식, 신소영, 이남구, 『諸病源候論』中 時氣病諸候에 對한 研究
2. 양종식, 신소영, 이남구, 『諸病源候論』中 溫病諸候에 對한 研究
3. 김인구, 김중환, '七損八益'에 對한 研究
4. 김기욱, 박현국, 『素問玄機原病式』의 병기이론에 관한 연구
5. 김도훈, 정창현, 『刪繁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外臺秘要』, 『千金方』, 『醫心方』을 중심으로 한 『刪繁方』의 서지학적 연구-
6. 이용범, 허기희, 이주혜, 『傷寒 下焦蓄血證과 四象 鬱縮膀胱證에 대한 비교 고찰』
7. 방정균, 『素問·生氣通天論』의 五味傷에 대한 考察
8. 박재경, 윤창렬, 薛己의 生涯와 醫學著作에 관한 研究
9. 이윤찬, 고승욱, 서대선, 김명수, 정현영, 『金匱要略·百合狐惑陰陽毒病證治第三』에 對한 研究
10. 고승욱, 이윤찬, 서대선, 김명수, 정현영, 『金匱要略·瘧證脈證并治第四』에 對한 研究
11. 유한철, 윤창렬, 李中梓 學術思想의 特徵에 관한 研究